

# 보관용

# 나눔터

2001 · 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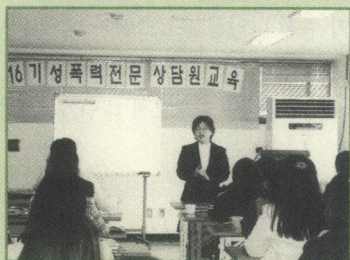
제37호

2001년 사업계획 **2**

2000년 상담현황 **4**

열린터 **8**

성문화 읽기 **10**



**12** 기획/해진스님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것

**15** 기획/군대내 성폭력을 말한다

**17** 이런 일을 했습니다

**18** 2001년 월별계획

**19** 나눔터 게시판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951-12 가람빌딩 5층 (135-270)  
 일반상담 · 열린터 02-529-4271~2  
 사무전화 02-576-7128, 576-5513~4 팩스 02-576-7127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KOREA SEXUAL VIOLENCE RELIEF CENTER



# 2001년 사업계획

## 일반상담부

상담부는 올해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 <피해자 부모집단 상담>, <사건지원 강화>, <상담통계 다각화>를 목표로 대상별로 내담자 지원을 강화하고 피해자에게 보다 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통합적 연계망을 강화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 성폭력피해자 상담은 법률, 의료, 심리적인 차원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성폭력 피해후 발생할 수 있는 성병이나 임신예방을 위해서 산부인과 진료는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 이를 위해 상담소에서는 병원 및 변호사와의 연계망 확충에 힘써왔고 2001년에는 이러한 연계망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강남, 서초구 지역의 사회복지기관, 산부인과, 심리상담소와 간담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 성폭력피해자 중 유아 피해의 경우, 부모의 반응 및 태도가 피해를 치유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아 성폭력 피해자의 부모는 당황하고 분노와 자책을 조절하지 못해 유아를 돌보기보다 자신의 감정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피해자 부모가 아이를 어떻게 도와주어야 하고 또, 부모자신이 입은 상처를 어떻게 치유해야 할지를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상담소에서는 피해자 부모 집단상담을 계획하였다.

\* 성폭력상담은 의료적 지원 및 심리상담에 그치지 않고 많은 경우 법적인 처벌을 위한 절차를 밟는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당황하고 지친 상황에서 혼자 법적인 처리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본 상담소에서는 토요 무료법률상담, 법정지원 등을 통해서 사건을 지원해왔다. 2001년에는 그동안 지원해왔던 사건을 정리하고 이후 사건 지원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피해유형별, 가해자유형별 사건지원 매뉴얼을 제작하고자 한다.

## 열린터

2001년 열린터는 일시보호 뿐만 아니라 장기시설로서 거듭나기 위한 준비작업을 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여성복지시설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며 그에 따른 프로그램도 확보해 나가고자 한다.

- 장기시설의 준비로서 기업 및 개인 등을 통하여 시설후원과 적극적인 재정을 확보하며 기술교육이나 사회복지관을 준비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외부와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원활한 정보교류와 발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퇴소후의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피해재발을 예방하고 생활적응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 정기적으로 모임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자조모임으로의 여건을 마련해 나간다.

- 각 내담자들에게 적절하고 필요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매개를 사용하며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이다.

- 이용일시에 따른 프로그램 제공을 체계화하여 지침에 따라 지원을 함으로써 내담자들에게 좀 더 알차고 조직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한다.

## 정보사업부

올바른 성문화 확산을 위한 온라인 정보제공과 사이버성폭력추방운동!!

#상담소 홈페이지, 천리안, 넷츠고, 여우닷컴을 통하여 월별 기획정보를 비롯한 성문화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상담소 홈페이지를 내실있게 운영한다. 자유게시판을 원칙을 가지고 운영하고, 주제토론게시판을 통하여 최신 이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다. 또한, 상담소와 회원간의 활발한 소통을 위하여 메일링리스트를 활용한다.

#사이버성폭력 실태조사, 토론회, 사건지원 등 사이버공간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을 추방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



## 21세기 여성 · 미디어 운동센터

미디어 매체를 통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왜곡된 성문화를 바로잡는 활동으로 특히 모니터 활동 재개와 미디어센터의 웹사이트를 통해 상담소의 미디어 센터 홍보에 주력할 것이다.

- 미디어 속의 양성 평등한 성문화 건설의 기초로서 모니터 활동을 실시하고
- 미디어의 성차별적인 내용에 대해 네티즌들의 의견을 담아내고 인터넷상의 시청자운동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고자 한다.
- 또한 중 · 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매체비평교육과 영상제작교육을 실시하여 교사들을 통해 청소년들의 미디어에 비판적인 안목을 길러 주는데 주력하고자 한다.

## 성평등교육문화센터

성평등 성문화 중심 성교육 프로그램 및 교사연수 프로그램 개발

- 성지식을 비롯하여 성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조금씩 다 담으려고 했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성차별적 성문화를 바꾸고 성평등 성문화를 지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둔 성교육 프로그램 및 성교육 교사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프로그램은 초등학교와 중 · 고등학교의 특성을 살려 각각 개발할 예정이다.

대상별 성교육 교사연수 프로그램 실시

새롭게 개발한 성교육 프로그램과 교사연수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성교육 교사연수를 실시한다.

- 초등학교 예비교원인 교육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6월 중에 5일간 '성평등 의식 및 성교육 연수'를 실시하여 초등학생들의 성평등 의식을 고취시키고 올바른 성지식과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 중등교원 및 중 · 고등학생을 접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성교육 · 성상담 교사 연수'를 실시하여 교사들의 성평등 의식을 고취시키고 여남평등적인 시각 속에서 성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 인권홍보부

- 내부사건 이슈화, 외부적 사안 대응 등 항시적 사업과 함께 대학내 성폭력 성차별 문화에 관한 실태조사 및 대책 모색을 위한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반성폭력학칙이 제정되고 시행되는 과정에 여성의 성적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착시키고 학내 성문화를 바꿔나가는 운동을 펼칠 것이다.

- 기존 윤락행위 방지법이 권력과 강력한 유착고리를 가지고 있는 성산업을 규제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온갖 형태의 성매매로 인한 인권침해를 겪고 있다. 여성의 탈매춘을 돕고 성산업을 규제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성매매방지법 제정을 위해 연대할 것이다.

- 상담소활동을 알려내고 건강한 성문화 정착에 일익하고자 제작되는 계간 [나눔터] 37, 38, 39, 40호를 제작한다.

## 연구소

올해에 연구소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진행하는 사업은 제조업 생산직 노동자들의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및 예방교육 사업이다.

제조업 노동자의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제조업 사업장에 알맞은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교육 매뉴얼을 만들어 직접 홍보 · 교육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성희롱/성폭력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개선 · 확립해, 피해 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여성 노동자를 성적으로 대상화하고 가해하는 노동환경을 개선해 여성노동자가 일터에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일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효과를 이끌어 내고자 한다.



# 2000년도 상담현황 분석

글 | 하은주 | 본 상담소 일반상담부 부장

본 상담소에서는 2000년 한해동안 <내담자 지원체계의 활성화>, <상담자의 여성주의적 강화와 전문성 향상>, <주·야간 통합작업의 정비, 정착에 힘쓴다>를 목표로 특수영역별, 대상별로 내담자 지원을 강화하고 상담원의 자질향상과 재교육에 힘써왔으며 상담업무를 체계화하는데 주력하였다. 이를 위해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 성폭력사건 지원체계 확립을 위한 경찰간담회, 상담원 심화 워크샵, 의료진 워크샵, 통합적 지원을 위한 연계망 워크샵, 토요일상담지원 변호사·사법연수생 모임, 사례연구 및 수퍼비전 회의를 꾸준히 진행해 왔다.

## 1. 전체 상담현황

- 1991년 4월 개소 이래 2000년 12월 31일까지 29,931회 20,117건 접수
- 1994년 위기센터 활동시작으로 상담증가(전년대비 31.40%증가, 93년 1,182건 94년 1,723건)
- 1996년 위기센터에서 위기상담뿐 아니라 일반상담도 접수 시작 상담증가(전년대비 41.1%증가, 95년 1,238건 96년 2,138건)
- 1999년 남녀고용평등법내 직장내 성희롱 조항 신설, 남녀 차별 금지법 제정으로 직장내 성희롱상담 및 전체 상담 증가(전년대비 20.15%증가, 98년 2,948건 99년 3,692건)
- 2000년 3월 2일부터 24시간 상담에서 12시간 상담으로 12시간 축소, 1999년과 비교할 때 22.18% 상담 감소(99년 3,692건 2000년 2,873건)

<표1> 연도별 상담현황

연 도	상담건수	상담회수
1991,92	2,028	2,834
1993	1,182	1,765
1994	1,723	2,553
1995	1,238	2,050
1996	2,138	3,459
1997	2,295	3,424
1998	2,948	4,285
1999	3,692	5,397
2000	2,873	4,164
총	20,117건	29,931회

## 2. 2000년 전체 분석

2000년에는 2,873건의 상담이 접수되었으며, 이중 80.37%인 2,309건이 성폭력 피해 상담이다.

### 1) 연령별 상담분석

전체 상담 중 성폭력 피해 상담의 연령별 비율은 성인이 57.60%, 미성년피해가 36.42% (청소년이 17.41%, 어린이가 12.95%, 유아가 6.06%)를 차지하고 있다.<표2 참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 강간이 32.26%, 성추행이 24.81%, 성희롱이 20.90% 순으로 나타나고 다른 연령대와 비교하여 성희롱 상담이 월등히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스토킹 피해상담도 9.47%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청소년인 경우 강간이 57.46%, 성추행이 24.88%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기할 사항은 다른 연령대와 비교하여 특수강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4.95%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청소년이 학교폭력, 집단폭행, 강도, 흉기사용 등의 피해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표3참조>

### 2)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분석

성폭력 피해를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로 살펴보면 아는 사람이 75.75%. 모르는 사람이 17.50%, 미상이 5.72%의 분포를 보여, 대부분의 피해가 아는 사람에 의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아는 사람인 경우, 직장내가 31.28%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여 직장내에서 위계, 위력에 의한 피해가 많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친족내가 14.29%, 데이트상대 9.95%, 학교/학원내가 9.5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표 3참조>

### 3) 상담의 후속 조치

2000년부터 서울시에서 성폭력 피해자 의료지원비가 지원되



있으며, 법률상담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2000년 토요법률상담은 176회로 1999년의 135회 보다 증가하였으며 면접상담 또한 582회로 1999년 481회와 비교하여 100회정도 증가하였다. <표4 참조>

### 3. 2000년 상담현황 분석을 통해 나타난 특기 사항

#### 1) 지도층 성폭력

2000년에는 사회지도층 인사의 성폭력 사례가 연일 언론에 보도되어 충격을 주었다. 사회지도층 인사의 성폭력 사건은 성폭력이 권력관계에서 일어나는 대표적인 인권침해 행위이며 물리적인 폭력 뿐 아니라, 위력, 권력이 성폭력 범죄에서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상담소는 2000년 6월 2주간의 집중상담기간을 마련하였고, 다음은 집중상담기간을 포함한 2000년 한해동안의 사회지도층 성폭력 사건의 분석결과이다.

본 상담소에서는 사회지도층에 대한 규정을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동선을 우선하고, 명예와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중시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 윤리, 도덕적으로 타의 귀감이 되기를 기대받고 있는 자로 하였으며 공직자, 성직자, 교직자, 언론인, 사회운동가, 기업인을 사회지도층으로 보았다.

- 2000년 한해동안 지도층성폭력 254건이 접수되었다. 이는 전체 성폭력피해상담 2,309건의 11%에 해당하는 수치로 심각한 수준이다.
- 가해자 직업별로 살펴보면 기업인이 39.76%, 교육자가 27.95% 순
-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에서는 직장내 상사/부하관계가 51.97% 차지, 이를 통해 권력관계뿐만 아니라 위계, 위력 관계가 성폭력에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다음으로는 교육자/제자 23.23%, 성직자/신도 7.09%의 비중차지
- 피해유형은 강제추행이 35.83%, 성희롱 29.92%, 강간 22.05% 순

<표5> 지도층성폭력 가해자 직업

<단위 : 건>

직업	공직자	문인	언론인	성직자	교육자	시민 운동가	전문직	기업인
254건	24 (9.45%)	2 (0.79%)	4 (1.57%)	23 (9.06%)	71 (27.95%)	5 (1.97%)	24 (9.45%)	101 (39.76%)

<표6> 피해자와 가해자위 관계

<단위 : 건>

관계	직장내 상사 부하	교육자 제자	성직자 신도	전문직 고객	데이트 상대	친족	모르는 사람	동네 사람	기타
직업	132 (51.97%)	59 (23.23%)	18 (7.09%)	17 (6.69%)	8 (3.15%)	3 (1.18%)	2 (0.79%)	3 (1.18%)	12 (4.72%)

<표7> 피해유형

<단위 : 건>

유형	강간	특수 강간	강간 미수	강제 추행	성희롱	스토킹	음란 전화	기타
254건	56 (22.05%)	3 (1.18%)	9 (3.54%)	91 (35.83%)	76 (29.92%)	3 (1.18%)	3 (1.18%)	13 (5.12%)

#### 2) 직장내 성폭력 심각

- 성폭력 피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중심으로 볼 때, 직장내인 경우가 31.2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성인 피해 중 성희롱의 경우, 278건의 성희롱 상담 중 직장내 관계에서 발생한 것이 219건으로 78.78%에 해당한다.
- 직장내 성폭력을 피해유형으로 살펴보면, 성희롱이 40.40%로 가장 많고, 성추행이 26.33%, 강간이 22.85%, 강간미수가 4.75%를 차지하고 있다.
- 이를 통해 직장여성들이 모든 종류의 성폭력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대부분의 성폭력 피해가 성희롱에서 강간으로 점진적으로 진행됨을 감안할 때 결국, 현재 우리나라 직장여성들은 심각한 성폭력 위험에 처해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직장내 성폭력 예방교육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 3) 스토킹, 사이버성폭력 피해

- 성인 성폭력 피해상담 중 스토킹이 차지하는 비율은 126건, 9.47%로, 이는 1999년의 8.85%보다 비중면에서 약간 증가하였다.
- 현재까지 연예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스토킹, 몰래카메라 등의 범죄가 사이버상에서의 스토킹이나, 몰래카메라 동영상, 악의적인 목적으로 여자친구의 전화 번호를 음란사이트에 올리는 등의 형태로 일반인에게도 발생하고 있다.
- 사이버 성폭력 피해의 경우 상담 건수는 아직 많지 않지만 피해자가 심각한 후유증을 겪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채팅을 통해 만나거나, 통신동호회에서 만난 관계에서 성폭력이 발생하는 등 컴퓨터가 성폭력 피해의 매개체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000년도 상담현황 분석

## 4) 현역 군인에 의한 성폭력 피해 발생

- 2000년에는 일반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현역 군인에 의한 성폭력 피해가 17건 발생하였다.
- 군인의 경우 군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수사의 진행상황을 알기가 어렵고 법적인 지원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많았다. 군 수사 기관에서 성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이 요구된다.

## 5) 고소율

- 2000년 성폭력 피해 상담의 고소율은 9.96%로 1999년의 12.71%보다 낮은 수치이다.
- 성폭력 특별법, 남녀차별 금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관련 법이 계속적으로 제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율이 낮은 이유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찰, 검찰 등 사법처리 관계인과 전체 사회의 인식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고소를 결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따라서, 피해자가 비공개로 자유롭게 신속하게 수사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고소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요구된다.

〈표2〉 2000년 상담내용

〈단위 : 건〉

피해유형	연		령			계	고소	
	성인	청소년	어린이	유아	미상			
강 간	429	231	81	10	49	800	84	
	32.26%	57.46%	27.09%	7.14%	35.51%	34.65	36.52%	
특수강간	29	20	3	0	6	58	23	
	2.18%	4.98%	1.00%	0.00%	4.35%	2.51	10.00%	
강간미수	70	14	4	0	14	102	21	
	5.26%	3.48%	1.34%	0.00%	10.14%	4.42	9.13%	
성추행	330	100	192	123	32	777	91	
	24.81%	24.88%	64.21%	87.86%	23.19%	33.65	39.57%	
성희롱	278	6	4	2	4	294	1	
	20.90%	1.49%	1.34%	1.43%	2.90%	12.73	0.43%	
통신매체이용음란	전 화	35	2	1	0	16	54	1
		2.63%	0.50%	0.33%	0.00%	11.59%	2.34%	0.43%
P C	5	0	1	0	0	6	0	
		0.38%	0.00%	0.33%	0.00%	0.00%	0.26%	0.00%
몰래카메라	4	0	0	0	1	5	0	
	0.30%	0.00%	0.00%	0.00%	0.72%	0.22%	0.00%	
남성피해	24	26	13	5	3	71	3	
	1.80%	6.47%	4.35%	3.57%	2.17%	3.07	1.30%	
스토킹	126	3	0	0	13	142	6	
	9.47%	0.75%	0.00%	0.00%	9.42%	6.15	2.61%	
계	1330	402	299	140	138	2309	230	
	57.60	17.41	12.95	6.06	5.98	100.00%	9.96%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혼인빙자	3	0	0	0	0	3	1	
성관련상담	66	50	8	4	36	164	1	
기타	255	69	9	5	59	397	2	
총계	1654	521	316	149	233	2873	234	



〈표3〉 성폭력피해에서 가해자와의 관계

〈단위 : 건〉

친족 250(14.29)		직장내	데이트 상대	동네 사람	서비스 제공자	선후배 /동급생	성직자 /신도	학교 /학원내	기타	아는 사람 계	모르는 사람	미상	총계
부	인척												
81 4.63	169 9.66	547 31.28	174 9.95	213 12.18	35 2.00	71 4.06	17 0.97	166 9.50	300 17.15	1749	404	132	2309
										75.75	17.50	5.72	100%

〈표4〉 상담의 후속조치

〈단위 : 회〉

월 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상반기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하반기	전체
상담 횟수	323	319	340	316	350	457	2105	420	408	261	304	349	317	2059	4164
상담 건수	212	212	217	209	233	331	1424	295	276	185	209	258	226	1449	2873
재 상담	111	97	123	107	117	126	681	125	132	76	95	91	91	610	1291
면접상담	53	44	54	42	48	47	288	68	51	34	44	52	45	294	582
서신상담	1	0	3	2	2	6	14	1	1	4	0	0	0	6	20
P C 상담	18	26	15	27	15	25	126	27	22	16	10	49	22	146	272
타기관연계	7	0	1	16	28	35	87	26	37	18	35	29	47	192	279
병원연계	5	0	7	28	31	26	97	24	29	18	29	27	22	149	246
고 소 건	0	0	0	19	19	43	81	35	30	19	29	21	19	153	234
경찰연계	2	0	6	10	4	9	31	9	10	7	13	8	11	59	89
법률상담	18	10	5	8	14	21	76	15	26	13	13	20	13	100	176
법정지원	1	0	1	0	0	4	6	0	0	0	0	2	0	2	8
진정서	0	0	1	1	2	0	4	1	0	0	0	0	0	1	5
자료지원	0	0	0	1	2	7	10	7	4	0	2	5	3	21	31



# 2000년의 열림터의 실태와 현황

글 | 오희옥 | 본 상담소 피해자 보호시설 열림터 부장

친족이나 동네사람 등 주위사람으로부터 지속적인 성폭력피해를 견디다 못한 피해자들이 열림터 거주를 의뢰해 오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다. 94년 9월 개소이래 2000년 말까지 입소한 내담자는 총156명으로 피해자가 132명이었으며 24명이 그의 가족이다. 또한 피해연령을 살펴보면 대부분 어린이나 청소년의 피해로 전체의 78%(103명)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00년에 열림터에서 생활한 내담자는 총29명으로 이 중에서 1명은 피해자가족이다. 가족1명을 제외한 28명의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강간이 21명(75%)이며, 성추행이 7명(25%)으로 나타나고 있다.

계	피 해 자 유 형			피 해 자 연 령			
	강 간	성 추 행	기 타	유 아 (7세미나)	어 린 이 (7~13세)	청 소 년 (14~19세)	성 인 (20세 이상)
28	21	7	.	.	1	21	6

피해자연령을 살펴보면 어린이와 청소년이 22명으로 전체의 79%를 차지하고 있으며 친부, 의부, 또는 친족(오빠, 삼촌, 사촌 오빠등)에 의한 피해가 78%, 모르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2명 이웃에 의한 피해가 1명 동급생에 의한 피해가 2명으로 나타나 여 전히 근친에 의한 피해가 열림터 입소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계	근 친 (3촌 이내)	친·인척	동급생 /선후배	이 윗	교사/강사	모르는 사 람	직장동료 /상사	기 타
28	22	.	2	2	.	2	.	.

하지만 이들의 피해 대부분이 유아나 아동기 때부터 피해에 노출되어 있다가 사춘기가 되어서 자신의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길 때 혹은 주위에 알려지면서 입소를 하게 되는 경우인 것을 보면 훨씬 더 근친강간의 심각성을 실감할 수 있다 하겠다. 성인 피해자는 6명으로 어렸을 때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의 후유증으로 입소를 한 경우가 4명이며 스토킹 피해가 1명, 모르는 사람에게 의한 피해가 1명으로 나타나 어린 시절 피해로 힘들어 하다가 성인이 되면서 지각을 하게 되고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에 적응하기 힘들어 본인 스스로 휴식을 취하면서 상담을 필요로 하여 찾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정도가 심각하여 정신과나 전문심리상담가에게 의뢰하여 267회의 상담을 하였으며 경찰에 고소고발을 한 경우가 4건인데 이는 열림터에 입소를 하기 전에 이미 고소를 한 경우와 입소 후에 고소한 경우가 있다. 고소한 4건중 1건은 4년형을, 1건은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1건은 가해자와 합의를 하였으며 1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지원내용	고소, 고발	병원치료	전문심리상담	훈련학습	기 타
건수	4건	79회	267회	1313회	44회

고소고발이 있을 때 경찰연계 시나 경·검찰에서 진술할 때 동석을 하게되며 재판이 진행될 때에는 재판 진행상황을 파악하여 적절한 지원을 하게 되는데 경·검찰, 재판 지원이 12회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부모나 가족들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긴장상태에 있던 내담자들이 여러가지 산부인과 질환이나 병들을 호소하게 되는데 2000년 한해동안 병원지원은 79회를 하였으며 입소중 내담자들에게 주1회의 개인상담을 비롯하여 각종 심리검사와 집단상담, 캠프, 학습, 성교육, 원예치료, 미술치료, 장점강화, 야외놀



이 등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내담자들에게 자존감을 회복하고 심리적인 안정과 성폭력의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계	상담치유후 귀가	친척집	타복지시설 입소	기 타
26	15	3	4	4

2000년 한해동안 퇴소한 내담자는 26명이며 심리상담 후 집으로 간 경우가 15명으로 가장 많으며 친척집으

로는 3명, 타 복지시설로는 4명이 입소를 하였고 4명은 자립을 하여 퇴소 하였다.

열린터 피해자는 가족이나 친족에게 장기간 피해를 당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장기적인 치유프로그램이 필요하게 되고 그에 맞는 프로그램도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다. 임시 피난처로서 열린터는 피해자의 위기 개입단계에 머물게 된다. 물론 적절한 위기개입은 어느 단계보다도 피해자에게 중요한 단계이긴 하다. 하지만 피해자의 심각성에 따라 장기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게 되는데 기간의 한계성 때문에 다른 시설로 옮겨가야 한다. 아직 모든 면에서 성폭력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한 피해자에게는 그곳에서의 생활이 그리 쉽지만은 않다. 아직 우리사회에 잔재되어 있는 성에 대한 왜곡된 시각과 편견은 피해자를 혼란스럽게 하고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게 한다. 그러므로 성폭력피해자의 임시피난처의 기능을 벗어나 장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쉼터, 통합기능의 체계를 가진 쉼터로 만들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성폭력피해 여성의 후유증 극복은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사회복지 차원의 총체적인 지원체제와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와 성의식이 바로 서고 관심과 배려가 따라준다면 훨씬 더 피해후유증 극복시간도 단축시킬 수도 있으며 사회에 나가 자신의 위치에서 당당하게 살아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열린터 가는 길

조현임 (열린터 자원봉사자)

이곳에 발을 디딘지 어느덧 3개월이 돼가고 있다. 열린터에서 자퇴를 한 아이의 고입검정고시를 돕고 있다. 일주일에 3번. 처음의 설렘과 두려움보다는 이제는 익숙해진 발걸음으로 열린터에 오는 발걸음은 가볍다. 벨을 누르면 아이들이 “누구세요?” 하는 말에 이제는 친숙하게 “음~ 선생님”이라고..... 처음에는 아이들과 어울리는 것이 어색했다. 그래서 계속 웃는 얼굴 하느라 힘들기도 했다. 그때 생각하면 조금 우습다.

처음에 1개월 동안은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다. 자원봉사라는 조금은 의무감과 책임감이 걸여된 상태에서의 활동은 열린터로 향하는 나의 발걸음을 무겁게 했다. 아이가 나에게 “선생님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할 때에도 내심 미안해졌다. 특별히 보이는 성과도 없는 것 같고 몇 시간 동안 집중도 못하는 아이를 앞에다 두고 계속해야 하나?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지속적인 회의가 들었던 시간이기도 했다.

하지만 아이들과 친밀감이 점차로 형성되고 아이들이 나에게 대한 호감을 표시할 때에는, 정말로 내가 이일을 하는 것이 진짜 잘하는 행동이라는 생각을 들게 했다. 나를 기다려주고 날 반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이 사회에서 내가 책임지고 할 일이 있다는 것은 자신에 대해서 커다란 자신감을 주었다.

그렇지만 힘이 들기도 하다. 처음에는 정해진 시간에 열심히 가면 되지 하고 생각했지만 그것도 만만치가 않다. 빼먹는 일이 생기게 되고 시간이 늦어지기도 하고, 아직까지 투철한 맘가짐이 생기질 않는다. 매일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통제 받다가 나 스스로 해야하니 조금은 어렵다. 내가 계획하고 실천하고 그리고 가르쳐야 하니깐. 나 자신에게 많은 도움이 되긴 하지만 외롭고 힘든 나 자신과의 전쟁이랄까! 뭐 이렇게 표현한다고 해서 그렇게 힘들진 않고 그냥 엄살이라고나 할까!

그리고 하나 배운 것이 있다. 처음에 사회봉사활동이라는 것이 그럴싸하게 보이고 조금의 맘가짐만 있으면 될 줄 알았다. 학교 다닐 때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무작정 동경했다. 그렇지만 정말로 만만치 않은 일로 전문적인 인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라는 생각이 들게 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여기에서 활동할지는 잘 모르지만 그만두는 그때까지 열심히 열심히 생활해 나가야지!



본 상담소 자원활동가 모임인 법정지원모임의 홈페이지(www.supporters.or.kr)에 연재된 글입니다.

**여덟 번째**

“순정파, 한국남자?”

2주정도 외국인 여자와 열애에 빠져있던 한국남자가 있었다. 우리는 그와 그녀를 위해 열심히 방을 비워주어야 했다. 그는 그녀를 사랑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다....

“I love you.”

그는 마침내 그렇게 말했다. 그러나 결론은 헤어지자는 외국인 여자의 “통고”였다. 그녀는 심각한 관계를 원치 않았다. 단지 밤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면 충분하였던 것이다.

한국인 남자는 자신의 감정을 추스리려하지만 역시 어려운 일인 것 같았다. 그는 보드카를 마시고 뺨이 버렸다.

우리 나라에서는 어떠한가?

거의 반대적인 상황 앞에서 서양 여자의 당당함(?)이 부럽기까지 했다.

라고 생각하는 그의 성의식의 잔재가 아닐까?

**열 번째**

“낙타 200마리? 300마리? 혹은 스페셜 프라이스?”

성문화가 이번에는 이집트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가이드 북에도 이집트의 성희롱을 조심하라고 나와 있을 정도로 이집트 남성들은 여성에게 매우(?) 친절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만져 보려고 시도합니다.

긴장하며 이집트 여행을 하던 성문화는 이집트의 결혼 문화를 조금은 체험할 수 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집트는 4명까지 결혼하는데(일부 다처제)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 신랑은 신부집에 엄청난(?) 돈을 지불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 까닭에 절 은 남자들은 해외로 나가 돈을 번다니요? 그런데 외국인 여성은 결혼 지참금에 대한 부담이 없답니다. 그런까닭인가요? 같이 갔던 후배(남)를 “동생”이라고 했더니

“낙타 200마리, 낙타 300마리?”

하며 자기에게 저를 팔라고 하더군요.

극대화하면 잘 포장된 인신매매죠.

결혼하기 위해, 여성을 얻기 위해 장인에게 낙타를

**일상속의 성문화 읽기**

- 여기는 이스라엘 키부츠입니다

**아홉 번째**

“Let me Kiss”

또 한명의 외국 여자와 사귀는 한국남자가 있었다. 그녀는 현재 이집트 여행 중... 떠나면서 한국남자에게 노래 한 곡조를 들려주었다. 그는 그 노래를 기어코 100%해석 해내고 말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었는데...

그가 내게 맨처음 물어 본 것은 “let you down”이었다. 우리는 머리를 말대고 그와 유사할 것이라는 뜻을 찾아내었다. 그 다음에 그가 물어 본 것이 “let me kiss”였다. 하나..... let이 사역동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해석하면...

그 한국 남자의 해석은 너무나 당연하게 “키스해 달라”는 얘기겠지...

물론 그는 그리 영어를 잘하는 편은 아니다. 하지만 너무나 당연하게 키스는 남자가 먼저 시도하는 것이

지불하면서 이집선 남성들은 “여성”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산다” —> “소유물?”

“불평등” 문화의 극대화된 표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제가 아랍문화를 잘 모르는 무식쟁이인지는 모르겠지만...

대학을 나오고서도 취직자리가 없어 시집을 가야한다는 이집선 여자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상점, 관공서 등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모습을 보지 못하던 저는 다시 한번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모든 여성이며, 경제적 평등을 위해 “직업”을 가져라라고 외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벌어오는 돈 받으며 집 안에서 사는 게 편안한 일이라고 말할테죠. 남자의 소유물 중의 하나로.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우리나라도 결혼을 통해 남녀의 불평등 문화가 계승되고 있지는 않나요?



“영국 신사”

한국에서 친절한(?) 혹은 예의바른(?) 사람, 특히 남자를 보면 우리가 하는 말이 있다. “영국 신사” 같다고... 여기서 만나는 “영국신사”는 어떠한가?

정말 그는 “영국신사” 같다. 줄을 설 때 늘 여자들에게 양보하려고 하고, 무거운 것을 들 때 자신이 들어다 주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칭찬한다. 그 뿐 아니라 영국남자들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았다.

그러다 같이 밥을 먹으면서 페미니즘에 관해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한국인이 내가 페미니스트냐고 물었다. 난 자신이 없었다. 차라리 휴머니스트라고 불리워지고 싶지?... 그 말에... 함께 있던 영국인 남자가

“나는 페미니스트이다. 그도 페미니스트이다. 너도 페미니스트다. (당시 5명이 앉아 밥을 먹었다. 한명은 나, 다른 한명은 한국인 남자, 세명은 영국인 남자들이다.) 자, 이제 손을 잡고 “우리는 페미니스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킁킁거리기 시작했다. 순간 모욕당하는 기분.

나중에 한명의 영국남자와 이야기를 하며 대부분의 영국남자가 보수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성폭력에 있어서도 남자만이 강간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짧은 영어로 바로 알아 들었다면....)

그러면서 떠오르는 소름끼침?

그 옛날, 여자가 몸이 약한 것을 미화시키고(약간의 페렴으로 늘 고생하고) 그것을 보호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젠틀맨”이라고 부른 것은 아닐까?

왜 여성들을 의존적인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가? 그것은 자신들의 사회적 권력을 지속시키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기제가 아닐까?

문은 내 손으로 충분히 열 수 있고, 늦었다면 줄을 서야한다. 짐도 물론 데려다 주지 않아도 잘 갈 수 있고, 물론 친절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하지만 ‘여성에 대한 보호’ 문화 속에서도 여성의 “독립심”을 약화시켜 “여성의 “의존성”을 미화시킨다면 결코 물리쳐야 할 문화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man's working 이다.”

공장에서 물건 쌓는 일을 하다, 친한 영국남자애가 나에게 한 말이다. 나 보고 쉬운 일을 하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스티커 붙이는 일등...

물론 그 애는 나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크고 팔 길이는 1.5배로 길었다.

누가봐도 그는 덩치좋은 남자로 물건쌓는 일에 적합한 인물이었다. 하지만 그 애가 체격이 좋다고 물건쌓는 일만 한다면 그것은 또한 그애에 대한 차별이다.

그 애도 스티커 붙이는 일같은 힘 안쓰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다만 내가 너무 높아서 쌓기 어려운 곳을 그애가 도와 준다면 문제없다.(물론 의자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러기엔 공장은 너무 바쁘다.)

유럽애들과 함께 일하면서 느끼는 것은 북미(덴마크, 스웨덴등) 유럽의 여자애들은 꺼리낌없이 힘쓰는 일에 달려든다는 것이다. 또한 놀이 문화도 “수다”뿐만 아니라 축구도 하고 테니스도 하고 보다 활동적이고 사회적이며 집단적이었다.

내 생각에 한국에서의 여자들의 놀이 문화는 주로 “수다”였던 것 같다. 혹 무의식 중에 몸을 사용하는 일을 남자들의 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남자애들이 두 개의 의자를 들 때, 여자애들이 한 개의 의자를 들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신체적 차이(이것은 나의 주관적인 생각이다.)를 사회적 차별로 합리화하는 것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수다를 떠는 즐거움에서 스포츠를 즐기는 경험을 해 보자. 몸이 주는 또다른 즐거움과 남자애들이 시간이 날 때마다 팩차기, 농구, 축구등을 하려는 이유를 조금은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 혜진스님(배영철)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것

**이 사건은** 2001년 2월 1일 피해자가 본 상담소를 찾아와 나눔의집 원장 혜진스님으로부터 지속적인 성적 유린을 당했다고 호소를 하면서 시작되었다.

본 상담소는 예상되는 사건의 파장을 고려하여 여성계 원로들과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의 숙의를 거쳐 언론에 피해자 고발 형태의 기자회견 방식보다는 시민단체 대표, 불교계 대표, 여성계 대표들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적절한 사건처리를 하는 방식을 갖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모으게 되었다.

1년의 고소기간이 지나 형사적으로 다룰 수 없는 문제였고 피해자가 시민사회단체의 도움을 원하였기 때문에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 그 진상을 밝히고자 하였다.

그에 따라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을 진상조사위원으로 위촉하는 공문을 보냈고 2월 22일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예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혜진스님이 2월 17일 먼저 양심고백이라는 이름의 기자회견을 열면서 사건은 세상에 공개되었고 하나의 성적 스캔들로 다루어지기 시작했다. 혜진스님은 자신의 행위가 성폭력이 아니었으며 문제제기한 여성과 성적 관계를 가진 것뿐이고 그에 대한 반성으로 원장직을 사임하고 승적을 반납한다고 밝혀 이 문제를 신중히 해결하려 하였던 우리에게 큰 실망을 주었다.

본 상담소는 피해자에 대한 이차적 피해를 막고 사건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민우회와 함께 이에 대

한 반박 성명을 냈다. 이것은 피해여성에게 치명적 상처를 주는 혜진의 기자회견의 영향에 대한 고려에서 나온 것이었다.

가장 논란이 되었던 지점은 이사건이 성폭력인가 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혜진스님에 대한 처벌 요구가 가혹하지 않은가 하는데 있었다.

먼저 이 사건에 대한 반응을 접하면서 우리사회에서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어디까지 와있는가를 감지할 수 있었다. 아직도 저항할 수 없을 만큼의 물리적 폭력이 수반된 성폭력만을 그 범주 안에 넣고 있는 사람들은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 어떻게 피해자를 무력화시키고 피해하게 만드는지 살피지 못했다.

신뢰와 친밀감을 이용한 교묘한 형태의 성적 접근으로 피해자를 혼란에 빠뜨리는 성폭력은 그간 직장내 성폭력과 성직자에 의한 성폭력에서 흔히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처벌요구의 문제를 보자. 이번 사건을 다루면서 우리는 시민운동가에게 남보다 월등한 도덕성을 요구한 것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는 관계를 추구하는 것은 양식 있는 사람이 지켜야 할 바가 아닐까. 자신의 지위가 높다면 그에 따르는 권력을 혹시나 남용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야 하는 것은 인권운동가로서 가져야할 기본자세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잘못이 공개된 마당에 나눔의 집에 끼칠 영향을 우려하며 일본우익이 준동할 지도 모른다는 걱정은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조직수호 논리로 읽혀졌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그 책임을



지는 우아한 모습으로 포장하였지만 우리는 이것이 이러한 조직 수호 논리의 연장이며 결국 자신의 성폭력을 부인하고 피해여성들의 문제제기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보았다. 우리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문제삼을 이유가 없다. 우리는 성폭력으로 결론내린 이 사건이 개인적인 관계로 별문제 안되는 사적영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그에게 피해자의 문제제기에 귀기울이고 책임지는 자세와 요구한 것이다.

## 피해여성에 대한 폭력

이번 사건에 대해 본 상담소의 홈페이지 등 사이버 상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 사이버 토론이 가지는 이점과 함께 그 폐해 또한 여실히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건의 본질에서 벗어난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비이성적 공격은 자기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무시하는 또 하나의 폭력으로 나타났다.

언론에 공개되면서 내연의 관계로 매도되고 사이버상에서 성폭력 사안에서 흔히 나타나는 '여성유발론'으로 무차별적 공격을 당한 피해자의 또 다른 피해는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

이번 사건이 논란이 되는 과정에서 성폭력을 둘러싼 쟁점들, 시민사회를 둘러싼 이견들이 드러나게 되었다. 진지한 토론의 장이 열리고 피해자의 인권에 귀기울일 때 우리는 이러한 쟁점들을 활발한 의사소통 속에서 함께 풀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사건이 우리사회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 전기되길 바란다. 우리는 다시 눈을 돌려 일상 속에 들어와 있는 성폭력을 바라보며 매일의 도전과 고민을 계속할 것이다.

## 혜진스님사건 진상조사위원회 결과

2월 20일 진상조사위원회는 시민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되었고 3.31일까지 6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조사대상 총 10명의 진술을 면접 또는 서면으로 검토하였다.

진상조사위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신혜수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대표), 윤기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나눔의집 감사), 이남주 (한국YMCA연합 사무총장), 이석연 (경실련 사무총장), 정강자 (한국여성민우회 대표), 조희연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성공회대 교수), 최영애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혜조스님 (전 불교인권위원회 여성분과 위원장, 전 나눔의집건립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

조사대상은 당사자인 오간사와 참고인으로 혜조스님(전 불교인권위원회 여성분과위원장으로 나눔의집 사정에 정통하고, 피해여

성1, 혜진스님과 함께 일했던 경험이 있으며 사건 발생후 혜진스님, 피해여성1과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눈 적이 있다.), 황정란 (나눔의집 간사), 고혜정(현 한국정신대연구소 소장, 오간사, 피해여성1, 혜진스님과도 잘 아는 사이), 서울여성노동자회 상담소 상담실장(오간사의 해고문제를 상담했던 활동가), 종로구청 상담원(오간사의 해고와 성적 유린 사건에 대해 상담했던 공무원), 나눔의집 할머니 그림지도교사, 일본인 여성 3인 등이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2월 20일 구성되어 3월 31일까지 1달 여의 조사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혜진스님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결과 요약〉

**1** 오간사는 1996. 7. 경부터 나눔의 집에 거주하며 나눔의 집의 업무를 보기 시작하였다. 당시는 나눔의 집이 안정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나눔의 집의 거의 모든 업무를 오간사가 보아 업무가 과중하였고 오간사는 사회단체에서 일하는 것이 나눔의 집이 처음이기 때문에 업무적으로도 서툴렀다.

**2** 오간사에 대한 채용과 해고는 혜진스님의 권한에 속하였고 오간사는 나눔의 집에서의 모든 업무에 관하여 혜진스님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업무상 상하관계에 있었으며, 스님이라는 권위에 눌려 혜진스님의 요구를 거절하기 힘들었다. 또한 혜진스님의 업무형태는 간사나 자원봉사자, 그곳에 거주하는 할머니들에게도 상당히 권위적이고 고압적이었다. 오간사는 혜진스님으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심한 질책을 받고 있었으며 오간사 개인적으로는 나눔의 집이 평생 삶의 터전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3** 오간사가 밤낮없이 나눔의 집에서 고된 일을 한지 1년 정도 지난 1997. 6. 경부터 1년간 혜진스님은 업무 외에 오간사에게 늦은 밤에 오간사의 방을 찾아 와 안마, 뜸, 신체적 접촉 등을 요구하였다.

**4** 오간사와 혜진스님간에 혜진스님의 요구에 의하여 신체적 접촉이 있는 기간은 4개월 정도이고 신체적 접촉의 횟수는 1개월에 1회 내지 2회 정도이고 모두 혜진스님이 오간사의 방을 찾아 온 것이지 오간사가 혜진스님의 방을 찾아 간 적은 없다.

**5** 오간사는 혜진스님이 처음으로 안마를 요구할 때 상당한 굴욕감과 모욕감을 느꼈으나 혜진스님과의 상하관계로 인하여 이를 거절하지 못하였고 그후 점점 요구정도가 높아질 때도 적극적으로 거부를 하지는 못하였으나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를 거절



하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나중에 혜진스님이 신체적 접촉을 요구하였을 때도 오간사는 그동안 안마와 뜸을 명시적으로 거절하지 못하고 있던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해해 있는 상태라 이를 거절하지 못하였고 결국 더 이상 이러한 상황을 계속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이를 탈출하는 방법으로 혜진스님의 방과 다른 등에 있는 방으로 방을 옮기기도 하였다. 한편 오간사는 혜진스님으로부터 1년여 동안 정신적 육체적으로 시달리는 동안에 이러한 사실을 다른 할머니나 자원봉사자들이 알까봐 항상 두려움에 떨며 심리적으로 위축된 생활을 하였다. 따라서 진상조사위원회는 오간사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어쩔 수 없이 혜진스님의 요구에 따랐다고 판단한다.

**6.** 진상조사위원회는 그동안의 조사과정을 통하여 오간사와 혜진스님간의 신체적 접촉은 혜진스님으로부터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고 있고 스님이라는 권위에 눌러 있는 오간사가 이에 저항하는 것이 불가능한 어려운 상황 하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는 오간사의 성적자기결정권이 침해된 상태였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7.** 진상조사위원회는 우리사회에서 성폭력의 개념에 대하여 강간이나 강제추행과 같이 강제력이 수반된 성행위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점을 이번 조사과정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이나 국제사회에서 적용되는 기준에 비추어 보아 성폭력이란 “성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받거나 제한 받은 상황에서의 성적언동”이라고 개념지을 수 있으며 그러한 기준으로 볼 때 이건은 성폭력의 한 유형에 해당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

## ● 시민사회에 대한 호소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의 시민사회에 대한 호소에는 우리가 함께 성찰할 만한 지적들을 담겨 있다.

시민·사회운동가들은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평등의식과 행동이 요구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 사건에서 시민사회가 성찰하여야 할 지점은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의식에서 한 영역의 인권의식이 높다고 하더라도 다른 영역에서는 인권침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일치에 대한 성찰 없이는 한 부분만을 도려내는 것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성적 인권 침해를 근절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성폭력사건이 발생할 때, 그것에 대한 접근과 인식에 있어 시민·사회운동 내에서 ‘피해자 중심의 관점’이 견지되어야 한다. 진상조사의 출발점은 피해자의 진술이고 진상조사의 핵심은 ‘피해자’의 진술에 ‘진실성’이 있는가 하는 점이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접하면서 피해자의 아픔과 고통에 대한 감수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가해자가 처벌되더라도 피해자의 정신적 상처는 회복되지 않은 채로 남겨지게 된다. 시민사회가 감수성을 가져야 할 지점은 바로 여기이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친화적 감수성’을 시민·사회운동이 견지하지 못하였다는 점은, 혜진스님을 옹호함에 있어 왕왕 조직의 논리가 차용된다고 하는 점에서도 발견된다. 예컨대 ‘혜진스님 사건이 불거지면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운동, 즉 ‘정신대 문제’ 해결운동에 그나마 적대적인 일본 우익들이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 ‘혜진스님 사건으로 나눔의 집이 큰 타격을 입는다’는 식의 논리가 그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견지해야 할 것은 조직의 논리나 집단의 논리가 아니라 개인 인권을 존중하면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다. 인권운동의 출발점은 피해자의 인권이지 조직논리나 집단논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차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여도 시민·사회운동이 견지하여야 할 원칙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피해자의 인권이 상황의 논리, 집단의 논리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압도적인 남성 중심적 구조와 문화 속에서, 시민·사회단체야말로 약자의 관점, 양성 평등적 문화가 존재하는 공간이어야 한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조사하면서 혜진스님의 행동에 우려할 만한 행태가 있었다는 점, 문제행동으로 발전할 수 있을 단초들이 많이 목격되었다는 것을 여러 사람들의 진술 속에서 발견하였다. 이런 정황들을 보면서, 우리는 왜 그것들이 사전에 ‘예방’될 수 없었는가하는 점을 묻게 되었다. 성적 인권침해가 개인의 사생활로 치부되지 않고 지적되고 경고되는 시민·사회운동 진영 내부의 올바른 성문화와 성인지적 인권의식이 요구된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우리사회는 권력관계나 지위 상의 위계관계를 이용한 성폭력을 크게 문제시하지 않는 풍토가 현실이다. 일반 사회의 위계질서 문화, 권력문화가 시민·사회운동에도 알게 모르게 번져있고 그것에 대한 성찰적 감수성이 취약함으로 인해,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폭력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풍토 자체가 문제인 것이다. 우리 사회의 국가주의적 문화, 권력문화, 위계문화는 가부장적 문화가 재생산되는 토양이 되고 있다.

이번 기회에, 이 사건을 접하면서, 무엇이 성폭력인가에 대한 시민·사회운동 진영 내부의 인식이 대폭 넓어져야 한다. 법적·제도적 장치들은 마련되어 가는데 우리들의 의식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점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 사이버토론 “군대내 성폭력을 말한다” 를 마치고

글 | 김영정 | 본 상담소 정보사업부 부장

하나의 성폭력 사건이 공개되었을 때, 사건의 진실을 둘러싼 갖가지 주장과 그것을 바라보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온라인 토론은 그러한 의견들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는 장이며, 때로는 사건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람들에게로 여론을 확대하여 사회적으로 이슈화시킬 수 있는 힘을 제공하기도 한다. 지난 2월 8일부터 2월 22일까지 한국성폭력상담소 홈페이지 [www.sisters.or.kr](http://www.sisters.or.kr) 에서 열린 사이버토론 “군대내 성폭력을 말한다”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는 군대내 성폭력의 실상뿐만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태도에 대하여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지난 1월, “사단장의 부하 여중위 성추행 사건”이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사단장 신분이던 육군 김모 소장은 지난 99년부터 부하 여장교를 여러 차례 성추행하였고, 육군은 김소장에게 보직해임과 정직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이 사건의 피해당사자인 이중위는 성폭력피해자로서 보호받지 못하고 근거 없는 소문과 비난, 위협 속에 지내야 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사건 지원의 일환으로 사이버토론게시판을 만들었다. 토론게시판을 만들면서 가장 크게 고려했던 것은, 군대 내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때는 물론이고 개인적인 공간에서 통신에 접속할 때조차 개인정보를 공개해야하는 사이트에서는 할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군인들의 상황이었다. 그래서 이번 토론 게시판은 익명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으로 개설하였다.

이번 사이버토론이 군대내 성폭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언론의 조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은 현역·예비역 여군들의 피해사례들이었다. 총 26건의 직·간접적인 피해사례가 게시되었는데, 인터넷 사용시 신변이 드러날 부담을 가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같은 사례는 결코 적은 수가 아니다.

그런데 굳이 어 처장이 두 팔을 벌려 아주 자연스럽게 저와 제 옆에 앉아있던 가족의 어깨로 올리더라고요. 순간 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벌떡 일어나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와버렸죠. 식당 연관문을 나설 때까지. 식당 출입문을 나오면서 뒤를 돌아봤더니 처장은 제 옆에 앉아있던 과장 부인을 붙들고 부르스를 추고 있더라고요. (글쓴이 : 현역대위)

그러나 그 분은 그 자리에 참석한 저와 저의 선배에게 애정어린 술잔을 주시며 격려해주신 것까지는 좋은데 차 한잔을 마시는 자리에서 저와 선배를 양팔에 안고 볼을 부비며 제 티셔츠 사이에 10만원짜리 수표를 넣어 주시더군요... (글쓴이:현역1)

게시된 사례의 상당수는 회식장소에서 일어난 성추행·성희롱이었으며, 그 내용은 억지로 술을 따르게 한다거나 부르스를 주는 것, 불쾌한 음담패설을 하는 것, 술을 마시며 고의적이고 과도한 신체접촉을 하는 것 등이었다. 이는 가해자들이 여군을 ‘동료’ 보다는 ‘성적 대상’으로 인식한 데서 오는 결과라 볼 수 있다.

게시된 사례 중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계급이 명시된 경우는 모두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가해한 것이었다. 이는 군대내



성폭력이 상명하복의 엄격한 위계질서를 이용한 것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은 피해자의 단호한 거부와 저항을 어렵게 하는 이유가 된다. 성폭력 피해를 당한 후에도 높은 계급의 상관을 상대로 문제제기를 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이후 불명예스럽게 군생활을 끝내게 될 가능성을 걱정하여 그대로 묻어두게 되는 경우가 많다.

현역·예비역 군인들을 비롯한 많은 네티즌들은 이종위에게 격려의 내용을 담은 글을 게시하고 이번 사건에 올바르게 해결되기를 바랐다. 이종위의 용기있는 행동을 지지하고 김소장에게 엄중한 징계가 내려져야 한다는 의견에서부터, 이번 기회를 통해 군대내 성폭력이 반드시 근절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 이르기까지 수백 건의 지지글이 게시되었다.

한편, 군대내 성폭력 추방에 대한 지지의견과는 달리 반대의 의견들도 많이 제시되었다. 그 내용은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각각 일반적으로 성폭력사건을 대하는 태도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이 사건이 군대내 사기저하와 분열을 조장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자집단 보호'라는 명목으로 특정집단 내에서 엄연히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은폐하고 성폭력 문제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데에 자주 이용된다. 특히 군대의 경우, 성폭력 문제를 제기하는 행동이 군대의 명예를 훼손하여 국방업무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식으로 호도할 수 있다.

둘째, 피해자인 이종위를 비난하는 태도이다.

**이종위는 한번도 아니고 8~9회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하는데 그때마다 가만히 상대방의 입술을 받아들었다는 것인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군....이종위 후식 마음으로는 거부하면서도 몸은 즐긴 것 아닌지? (글쓴이: 변호인)**

**그 중위의 행실도 문제가 많아요. 업무 수행도도 매우 저열하고... (글쓴이: 속타서)**

다른 범죄와 달리 성폭력 범죄에 있어서는 피해를 당한 여성이 오히려 주위의 비난을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평소 행실을 문제삼는 것을 넘어서, 아예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사건을 만들어낸 것이라며 누명을 씌우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셋째, 김소장의 행위는 성추행이 아니라 자상함의 표현이며 오히려 이 사건의 피해자는 김소장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사단장은 너무 인간적이었고 아래사람을 대할때 친근도를 스킨십으로 표현한 것이 그런 화를 자초한 것이니..**

**(글쓴이: 속타서)**

이러한 태도는 가해자의 행위 자체를 성폭력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과, 평소 가해자의 인격과 능력을 통해 성폭력을 저지를 사람이 아니라고 옹호하는 것의 두 가지 형태를 띤다. 우선, 행위 자체를 성폭력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흔히 직장내 성희롱을 대하는 태도에서 많이 나타나는 관점을 답습하고 있다. 즉,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는 윤행류 역할' 또는 '친밀감의 표시'로 여기는 것이다. 그리고, 가해자의 측근임을 자처하며 성폭력 사실과 무관한 평소의 인격과 능력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대표적인 '가해자 옹호'의 모습을 보여주는 태도이다.

성폭력사건을 두고 벌어지는 사이버토론은 성차별과 성폭력을 없애겠다는 의지의 발현장이기도 하지만, 거꾸로 진실을 거스르려는 세력의 참여도 점점 더 끈질김과 적극성을 보여주고 있다. 성폭력문제에 대한 그릇된 관점을 바로잡고 인식수준을 한층 더 높이는 데 있어 사이버토론장은 또 하나의 치열한 활동영역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대로 군대 내에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자리잡고 성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다면 보름간 1만4천 회의 조회와 1092건의 게시물을 올린 네티즌들의 소중한 뜻이 헛되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 사단장의 부하 여중위 성추행 사건

지난 1월, 현역 사단장이 성추행 혐의로 보직해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육군은 부하 여군장교를 성추행한 혐의로 현역 사단장이던 김모 소장을 보직해임하고 육군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다.

김소장은 99년 12월부터 약 6개월간 자신의 집무실 등에서 사단소속 여군장교를 꺼안고 입을 맞추는 등 여러 차례 성추행하였다. 고민 끝에 피해자인 여중위가 고소장을 냈으나 하루만에 고소를 취하할 수밖에 없었다.

성추행 사건이 일어나고 이 사실이 알려지는 과정에서, 피해 중위는 성폭력 피해자로서의 기본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였다. 가해자측으로부터의 회유·협박뿐만 아니라 사생활과 관련된 근거 없는 비난을 접하기까지 하였다.

이렇듯 피해자가 겪은 고통과 그간의 정황이 일반인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김소장 개인의 차원을 넘어 군대 내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보직해임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김소장은 국방부에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지난 3월 전역지원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본 상담소를 비롯한 여성단체들은 군대내 성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달 국방부 차관보와의 면담을 가졌으며, 국방부는 장병교육 강화, 고충심사위원회 운영, 성폭력 상담/신고 전담창구 개설 등을 골자로 하는 계획을 추진 중임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그동안 일반인들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은 채 행해져왔던 군대내 성폭력 문제를 공론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 결과, 군대 내에 실제로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이런 일을 했습니다

### 제16기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

3월12일부터 23일까지 제 16기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교육에는 40명이 수료하였으며, 현재 본 상담소에서 자원활동하시는 분은 9분입니다.

### 사이버 성폭력 토론회

토론회 "사이버성폭력, 이대로 둘 것인가?"가 2월 27일 성공회대성당 프란시스코홀에서 본 상담소와 한국여성단체연합 대안사회정책연구소의 공동주관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사이버성폭력으로 인해 여성의 온라인 접근권이 심각하게 제한 받고 있는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고자 열린 이 자리에서는, 5만 여명의 네티즌이 답한 성의식 설문조사와 그룹 심층면접의 분석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 열린터 집단상담

열린터의 현업소자와 퇴소자를 중심으로 2001년 2월 20일부터 22일까지 2박3일동안 경기도 양평에서 집단상담이 진행되었다. 이 행사에는 현내담자 9인과 퇴소자 4인이 참여하였으며 집단상담을 위한 준비작업으로 첫날에는 진로적성검사와 요즘 청소년층의 관심사와 궁금증을 4조로 구성하여 다양한 상황극을 연출하였다. 둘째날에는 5세션으로 구성된 집단상담에 참여를 하였다. 리더로는 현재 그리스도 신학대 사회복지학부교수로 계시는 권진숙선생님이 수고를 해주셨다. 이번 집단상담에서는 성학대에 대한 이해와 자신의 이해를 통해 나의 미래상을 구축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자신의 감정과 의견을 자유롭게 얘기하면서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고 자기를 성찰하면서 자신의 정체감을 확인하고, 또한 분노 및 조절훈련 작업을 통해 가해자에게 분노를 표현하는 시간과 생애곡선 그리기, 안전계획 및 자신의 미래상을 그려보며 마무리를 하였다. 마지막날에는 평가를 통해 아쉬운 점과 보충할 점에 대해 토의하였으며 용인의 에버랜드에서 놀이기구를 타고 입소자와 퇴소자들이 어울려 서로의 자매애와 결속감을 다져가는 시간을 가졌다.





# 2 February

- 정기총회(15일)
- 열림터 집단상담(20~22일)

# 3 March

- 16기 성폭력전문 상담원교육 (12~23)
- 나눔터 제작(37호)

# 5 May

- 개소 10주년 기념행사(29)
- 가정폭력 성폭력 연계망 구축 사업 : 서울시 구단위 협의회 시범운영 간담회(I)

# 6 June

- 정신대 수요시위
- 직장내 성희롱 자료개발을 위한 워크샵
- 초등학교 예비교원 대상 성평등 의식 및 성교육 연수
- 나눔터 제작(38호)
- 전체 야유회
- 성폭력 가정폭력에 관한 경찰교육 (5회: 7, 14, 21, 128, 7/5)
- 대학내 성차별적 성문화바꾸기 홈페이지 개설

# 4 April

-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 의료기관관련자 교육(28)
- 상담소 홈페이지 개편

# 7 July

- 제4회 성교육 성상담 교사 연수
- 교사 대상 매체 비평교육(23~27)
- 직장내 성희롱 강사 워크숍

# September

# 8 August

- 교사 대상 영상제작 교육(6~10)
- 열림터 집단상담
- 노조 활동가 대상 직장내 성희롱 워크숍

# 9

- 제조업 노동자 대상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1)
-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
- 쉼터 보호시설 관계자 간담회
- 나눔터 제작(39호)
- 대학내 성차별 성폭력 실태 및 대책에 대한 토론회
- 대학내 성차별적 성문화바꾸기 공모

# 10 October

- 제조업 노동자 대상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2)
-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 : 보호시설 관련 종사자 및 상담원 교육(19, 20)
- 성폭력 가정폭력 연계망 구축사업: 서울시 구단위 협의회 시범 운영 간담회(II)

# 11 November

- 대학내 성차별적 성문화바꾸기 공모작 전시회 (2)
- 제조업 노동자 대상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3)
- 가정폭력 성폭력 연계망 구축의 발전방향을 위한 토론회(10)
- 상담, 쉼터 매뉴얼 제작 배포
- 피해자 부모 교육

# December 12

- 나눔터 제작(40호)
- 한해 보내기



**새로 나온 자료집을 소개합니다.**

『5개 대상별(미취학~고등학교) 성교육 프로그램』 및 『성교육 그림자료집』

5개 대상별로 성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자료집으로 엮었다. 미취학과 초등학교 저학년은 각각 4차시, 초등학교 고학년은 6차시,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8차시로 프로그램을 구성하면서 단계별로 중요한 부분들이 강조되어 있다. 또한 성교육을 진행할 때 교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림자료집(20컷)을 따로 제작하여 교육의 시각적 효과를 살릴 수 있도록 하였다.

(자료집 및 그림자료집 11,000원, 그림자료집만 구입시 4,500원)

**상담소(얼림터)에 물품을 기증하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금란 김소향 김언정 김영정 김하연 박혜진 서민자 송은희 안홍례 유자인 유지영 윤정희 이소진 이영란 이정은 이효숙 이희숙 전경림 정선 조중신 최영애 한상에 한정화 홍기선 던킨도너츠 사랑의 친구들

**새로오신 (후원)회원님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윤정희 이선이 이은정

**10월부터 12월까지 회비를 내주시 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강기원 강남식 고순례 구나은 권혁건 김강자 김미경 김미숙 김언정 김영정 김은희 김정희 김종구 김준호 김현란 김현식 김혜원 노미순 류재경 문선경 문효진 민웅기 박혜진 변혜정 신은주 심수희 오숙자 오숙희 오희옥 우안녕 유은주 윤용미 윤정희 윤지원 윤지희 이경룡 이경미 이경애 이금형 이명선 이백수 이소진 이영분 이윤상 이은정 이효숙 임민희 임순영 장연집 장윤경 전석호 정남운 정대현 정성광 정옥분 조중신 지인순 최동석 최영애 최용득 하은주 홍은정

**10월부터 12월까지 후원회비를 내주시 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곽은하 구민지 김경희 김미경 김소명 김순형 김영선 김영애 김은정 김일륜 김정국 김혜숙 김화영 박미향 박선희 박윤희 박진숙 배은경 설연자 송성애 안윤정 양민희 오은화 원혜정 유숙영 이선이 이순례 이원장 이윤미 이은정 이은정 이재인 이정아 이주희 이춘자 이푸른메 임자영 전경림 정경란 정교화 정윤이 조소연 주서현 차재순 최옥경 최지너 홍성복

**\*한국성폭력상담소 메일링리스트 (sister)에 가입하세요!**

sister@einsoft.com은 회원, 후원회원, 지킴이들이 가입할 수 있는 내부 메일링리스트입니다. 상담소 소식과 회원들의 사인 이야기를 이메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보사업부 feminfo@thrunet.com 로 가입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성평등문화를 만드는 마우스의 힘! 사이버나눔이를 모집합니다.**

상담소 홈페이지와 메일링리스트의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해주실 사이버자원활동가를 모집합니다. 정기적으로 성문화에 관한 글을 기고해주실 분, 외국 아티클을 번역해주실 분, 그리고 웹디자인과 기술적 지원을 해주실 분들은 모두 환영합니다. 사이버나눔이로 활동하고 싶으신 분은 정보사업부 feminfo@thrunet.com 로 원하는 작업과 간단한 자기소개를 보내주세요.



## •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이런 곳입니다.

1991년 4월 성폭력 없는 사회를 만드는데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여 한국성폭력상담소의 문을 열었습니다. 개소 이래 본 상담소는 지금까지 2만 6천여 회의 성폭력피해자들과의 법적·의료적·심리적 상담을 통해 내담자들이 피해를 극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하였으며, 성폭력의 원인 및 예방대책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인간중심적인 성문화를 정착시키고, 여성의 인권을 회복시켜 보다 평등하고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 • 여러분의 후원으로 성폭력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 없이는 상처를 극복할 수 없는 사람이 아직도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성을 모아주시면 상담소에서는 이를 소중히 받아 성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하겠습니다. 후원회원이 되시면 본 상담소의 소식지[나눔터]를 받아보실 수 있으며, 상담소의 각종 행사에도 초대됩니다. 지금 전화하여 월 단위, 혹은 연 단위로 후원금을 약정하여 주십시오. (예금주 : 한국성폭력상담소)

- ♣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열린터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을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동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입니다. 귀하(사)가 기부하신 상기금액은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79조의 2에 의거하여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회비는 자동이체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은행명	계좌번호
국민은행	009-01-1176-632
농협	037-01-194301
조흥은행	308-01-133092
중소기업은행	216-013179-01-018
한빛은행	309-042818-13-002
평화은행	025-01-0000-541
외환은행	224-22-02532-8
한빛은행	441-04-107528
신한은행	219-05-001717

문의 : 박혜진 부장 / (02)576-7128

## •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는 외부 강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 상담소에서는 성폭력 예방과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주제에 대하여 외부 강연 사업을 하고 있으며, “직장 내 성희롱” 관련법의 제·개정으로 각 기업 내 강연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 ■ 강의 주제

성폭력 실태와 예방 / 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성교육 / 어린이 성폭력 / 직장내 성희롱 / 학내 성폭력 예방 및 성문화 / 성교육 지도자 교육 / 자녀 성교육 지도 / 유형별 성폭력 상담 방법

※ 보다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본 상담소에서는 강의와 더불어 상담소에서 제작·판매하고 있는 비디오를 함께 시청하고 토론하는 강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의 의뢰 문의 : 김언정 부장 / (02)576-7128

## \* 한국성폭력상담소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

성폭력은 여성에게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언어적·정신적 폭력으로, 인권에 대한 유린행위입니다. 성폭력은 결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담소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함께 풀어갈 수 있습니다.

일반상담, 열린터 : (02)529-4271~2



본 상담소 심벌은 여성을 나타내는 우가 3개 모인 것으로, 이는 여성들이 손을 잡고 서로의 울타리가 되어 힘을 모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양쪽의 비스듬한 다리 모양은 피해여성의 자립을 위해 여성들 스스로가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벌의 색깔은 '여성' 과 '자매' 를 상징하는 자주색입니다.

- **이사** 김삼화·문해란·박찬운·이명숙·이상엽·이은미·천병태·최영애·최보원·최은순·홍순기 ● **감사** 회계사/배자하 사무사/차제능 ● **지원위원** 교육 교사/김성애·차옥덕 교육학/김인수·정유성·현기섭 문학인류학/정병호 사회학·교육심리학/강영숙 저널리스트/박미라 윤리교사/백영애 청소년교육/이규미 ● **법률** 법학/한인섭 변호사/강기원·고순례·김삼화·김의창·남성렬·박성호·박찬운·이명숙·이백수·이유정·이향아·임종인·장경호·장철우·정성광·정연순·최은순·최현희 경찰/김강자·이규형·하일호 ● **상담** 정신보건사회사업가/오현숙 목회상담가/이재훈 임상심리상담가/권양숙 심리학/김진진·김경규·이윤로·이강호·이해성·장연집·경남은 사회학/장영복 사회복지학/이영분·이원숙·한인영 상담심리학/권혜수 ● **의료** 가정의학과/김종구·정영숙 법의학/강신봉·권일훈·문국진·서중석·이경룡·이윤성·최영식·황적준 비뇨기과/이유식 산부인과/김주필·김현식·김홍배·문영규·민용기·박금자·박종민·손인숙·윤경·이길여·이신애·이옥주·임용택·경정원·조삼현·조정현·최보원·홍순기 성형외과/정영덕 소아정신과/소은희·신의진·최보문·임태식 외과/오세민·주수호 예방의학/이용호 임상병리학/강정옥·문해란 정신과/김광일·김병후·김정일·남정현·박수용·박진생·양정순·이수경·전지홍·조맹재·최진숙 치과/이상엽 한의학/강명자·김영선·김효선·서은미·이은미·천병태 흉부내과/안철민 ● **재정** 프리랜서/여난영 회계사/배자하·임종은 ● **정보사업** 통신/김형준 ● **홍보출판** 신문방송학/김용숙·최선열 언론인/전여옥 여성학/박해란·오숙희 연극/김지숙 출판/권혁진·이인자 PD/교학찬 조소/홍성도 ● **21세기 여성·미디어운동센터** 공동위원장/박정순 자문위원 신문방송학/강남준·강명구·김양희·김홍순·원용진·전석호 논설위원/지영선 ● **부설 성폭력문제 연구소** 사회복지학/이원숙 사회학/김준호·심영희 여성학/김은실·변혜정·이재경·장필화·조주연·이경미·이미경·임순영 철학/이상화·정대현 심리상담가/권진숙 아동복지학/강화정 영문학/강경화 청소년연구원/김옥순 법학/김선옥·김엘림·신용자 사회심리학/김혜원 사학/박진숙 ● **소장** 최영애